

## 중국 고대 기와의 특징

오세은, 309호 중국실 18:00~18:30

기와는 비바람으로부터 지붕을 보호하고 동시에 건축물을 장식한 건축재이다. 제작 틀에 점토를 넣어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가마에 구워 완성한다. 지붕을 암키와와 수키와를 이어 덮고 처마 끝을 막새[瓦當]로 마무리했다. 중국은 주周나라 때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기와를 사용했으며, 전국시대戰國時代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막새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귀신, 사슴, 나무 등의 다양한 무늬를 새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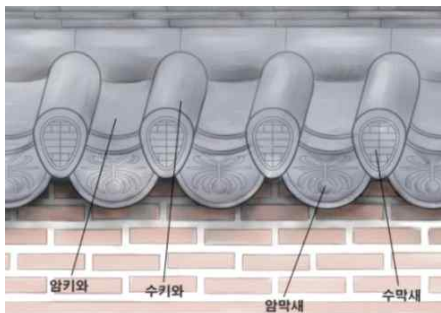


그림 1 기와의 명칭(출처: 네이버)

전국시대의 진秦나라 기와는 산시성[陝西省] 도성 근처에서 대부분 발견된다. 동물무늬, 사슴무늬, 봉황무늬 수막새가 주를 이루고 특히 봉황은 신령스러운 동물로 춘추전국시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허베이성[河北省]의 연燕나라 기와는 동물얼굴무늬의 반원막새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크기는 지름이 20~30cm 정도의 대형과 20cm 이하의 소형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대형은 주로 궁전의 중요한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둥성[山東省]의 제齊나라 기와는 도읍이었던 임치臨淄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대부분 반원막새로 진나라와 연나라 것과 비교하면 크기가 작고 태도도 곱다. 반원막새 중앙에 배치한 나무무늬는 제사를 지내던 사직단 중앙에 위치한 상수祥樹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秦과 서한西漢시기 초기에 유행했던 반원막새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하고 한대는 주로 수막새가 제작되었다. 한대 초기 문자가 새겨진 수막새가 출현하여 중기와 후기에 매우 유행했다. 문자는 ‘장락미양長樂未央’·‘장생무극長生無極’·‘부귀만세富貴萬歲’ 등 길상어吉祥語와 궁성, 관서 등 기와가 사용된 장소, ‘한병천하漢并天下’와 같이 한나라의 천하통일을 과시한 내용 등 그 종류만 300종이 넘는다. 대부분 전서체篆書體이다. 이 중에 ‘장락미양’은 길상어이면서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고조漢高祖 때 세워진 장락궁과 미양궁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후 수·당대부터는 불교의 영향으로 연꽃무늬 기와가 주로 제작되었고 송·원대 이후에는 청색과 황색 유약을 발라 구운 독특하고 다양한 기와들이 제작되었다.



그림 2 녹유와당, 명, 증9419

## 고려왕실의 청자

서유리, 303호 청자실 18:00~18:30

고려시대 왕실은 청자의 주요 수요처였다. 특히 왕실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관료에게 하사하거나 대외적 목적 등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최고급 청자의 수요처라고 할 수 있다. 왕실에서 사용된 청자의 양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는 왕릉 출토 청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왕릉 주체의 몰년沒年과 관련이 있어 편년을 알려주어 청자의 시대적인 양상을 읽어 볼 수 있다. 고려 17대 인종仁宗(재위 1122~1146) 장릉張陵, 19대 명종明宗(재위 1170~1197, 죽은 해 1202) 지릉智陵, 21대 희종熙宗(재위 1204~1211, 죽은 해 1237) 석릉碩陵 등에서 출토된 청자는 당대 최고의 왕실 청자로 주목받는다.

청자실에는 대표적인 왕실의 청자인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청자들과 지릉 출토 청자가 소개되어 있다. 인종 장릉 출토 <청자과형병>은 참외를 본뜬 몸체에 치마처럼 주름이 잡힌 굽다리가 달려 있으며 기벽이 얇다. 입은 여덟 잎의 꽃 모양으로 벌어져 있다. 빙렬氷裂이 없고, 광택은 은은하여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극찬했던 ‘고려 비색翡色’의 표본을 보인다. 단아한 기형器形과 고도로 정선된 유약과 태토가 돋보이며 세련미를 풍기는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지릉 출토 청자들은 1202년이라는 능의 조성 연대를 통해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나 기형, 장식기법, 무늬 등에서 13세기로 편년되는 희종 석릉 등의 출토품과 유사한 점이 많다. 유색은 절정기 비색에 비해 탁한 회청색을 띠며 역상감 기법이 보인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고려사』에서 고종 42년(1255) 보수했다는 기록에 부합된다. 이처럼 왕릉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시기적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 청자 변천의 연구에 도움이 되며, 고려인들이 구사했던 최고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 청자과형병, 높이 22.7cm



그림 2. 청자방형대, 높이 8.6cm



그림 3. 청자상감여지문대접, 높이 8.4cm

제72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4월 26일)

## 베제클리크 석굴사원의 불교미술

권영우, 307호 중앙아시아실 19:00~19:30

석굴사원이란 인도의 데칸고원 일대,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우즈베키스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중국 북서부 등에 분포하는 사원 양식으로, 바위산이나 협곡 등의 절벽 면을 수평으로 파 들어가 그 내부에 예배대상을 안치하거나 승려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한 종교시설입니다. 불교의 승려들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서 석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석굴사원은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한적한 곳에 자리하며 하천을 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석굴 내부는 조용하며 뜨거운 열기와 비바람을 막아주어 중앙아시아의 혹서와 혹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석굴 사원은 평지에 있는 사원 건축과 닮아갔습니다. 석굴 안의 깊은 곳에는 불상이 모셔졌고, 벽면에는 불교 경전의 내용을 실감나게 묘사한 화려한 그림이 가득 그려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원을 만드는 일 자체가 공덕功徳을 쌓는 것으로 이해되어 불교 신자들은 앞 다투어 재산을 내어 석굴 조영에 동참했습니다.

베제클리크 석굴은 서역북도의 대표적 오아시스인 투루판에 있는 석굴사원입니다. 위구르어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된 집’이라는 뜻을 지닌 이 석굴은 10세기 위구르 왕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부터 활발히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독일, 러시아, 일본에 의해 벽화의 상당 부분이 절취되어 유럽과 아시아의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베제클리크 석굴 벽화의 다수는 현재 제15굴로 명명한 석굴에 있던 것을 일본의 오타니탐험대가 절취해 온 것입니다. 이 벽화들은 ‘서원화誓願畫’라는 주제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서원화는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위구르 지배기에 가장 유행한 그림 형식입니다. 화면의 중심에는 과거불이 크게 표현되고 양측에 석가모니의 전생 모습과 더불어 천인, 승려, 보살 등이 배치되며, 여러 시점의 이야기를 한 장면에 압축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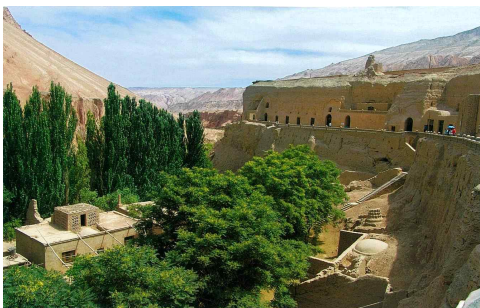


그림1. 베제클리크 석굴사원 전경



그림2. 제15굴 서원화 복원도



제72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4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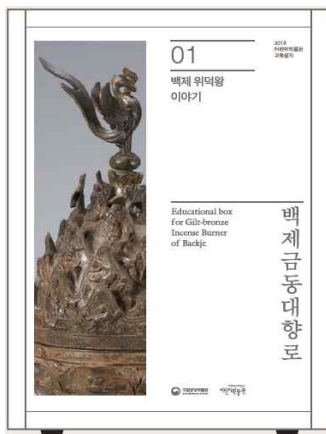
## 어린이박물관 교육상자

고지훈, 하하배움터(어린이박물관 입구)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에서는 매년 ‘교육상자’라는 어린이 체험교구를 제작합니다. 교육상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소개하고 또 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백제금동대향로, 2020년 조선시대 평생도, 2021년에는 도자기, 2022년은 익산 미륵사지를 주제로 교육상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큐대에서 소개할 교육상자는 ‘백제금동대향로’입니다. 백제금동대향로(옛 지정번호 국보 제287호)는 1993년 충청남도 부여군 능산리에서 발굴된 백제시대 향로입니다. 백제금동대향로 교육상자는 백제금동대향로에 나타난 다양한 인물, 동물 등을 바탕으로 6~7세기 백제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세상, 문화, 예술, 역사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국립부여박물관과 공동 기획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각 상자는 백제 위덕왕 이야기(1번), 백제 사람들이 꿈 꾸는 세상(2번), 백제 어린이 오케스트라(3번), 백제의 옷차림(4번), 백제금동대향로의 꿈(5번)을 주제로 하여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과 아날로그 콘텐츠를 균형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실물 체험용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 오토마타 장치까지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상자에 담아내어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체험하면서 백제금동대향로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에 참여하시면 어린이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 교육상자 체험이 가능합니다.



백제금동대향로 교육상자